

'탄생석' 순회전시 군산서 열린다

익산시 보석박물관, 롯데몰 군산점서 9~24일 '행운을 불러오는 보석, 탄생석' 개최

익산시가 군산 시민들에게 보석도시 익산과 보석박물관 알리기에 나선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행운을 불러오는 보석, 탄생석' 순회전(展)을 오는 9~24일 롯데몰 군산점 1층 로비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2개월 탄생석의 유래와 의미를 알 수 있는 전시로 보석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탄생석 12종의 원석 및 나석을 선보이고자 마련됐다.

18세기 대중들에게 일반화된 탄생석은 자신이 탄생한 달에 속하는 보석을 지니면 행운과 장수를 불러들인다고 생각해 수호석으로 여겨 지기도 했다.

전시가 진행되는 4월의 탄생석은 '다이아몬드'로 보석의 왕으로 불리며, 그리스어 '정복되지 않는다(Adamas)'에서 유래했다. 영원한 사랑을 상징해 결혼 예물을 대표하는 보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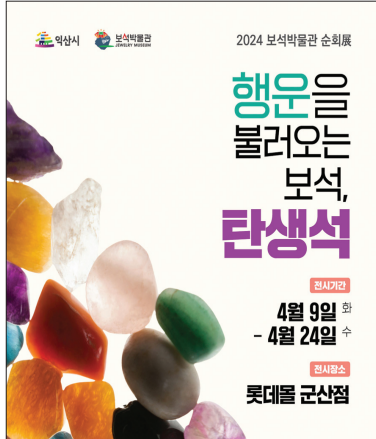
보석박물관은 천연 다이아몬드 원석과 연마된 1캐럿짜리 나석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석인 자수정을 비롯해 아쿠아마린, 에메랄드, 루비 보석도 만나볼 수 있다.

관람 시간은 롯데몰 군산점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오는 15일은 휴점일이다.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보석박물관 누리집(jewelmuseum.go.kr)에서 확인하거나 보석박물관(063-853-4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석박물관 관계자는 "협조해주신 롯데몰 군산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여유로운 주말에는 보석박물관과 익산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행운을 불러오는 보석, 탄생석' 순회전 포스터

故 하반영 화백 아들 하지홍 작가 개인전

전주기린미술관, 16일~5월 15일 작품 40점 전시

전주기린미술관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 까지故 하반영 화백 아들 하지홍 작가 제2회 개인전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몽양의 피카소'라 불렸던 고 하반영 화백의 넷째아들 하지홍 작가는 어릴적부터 아버지 화실을 드나들며 좋은작품을 많이보고 영감을 얻었던 그는, 학창시절 그림과 관련된 상을 놓쳐 본적이 없을 만큼 그림에 소질을 보였다.

하루 7~8시간을 화실에서 작업한다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 40점을 전시한다.

하 화백이 5세 때 그린그림을 포함해, 추상화인 사계절과 사람들, 정물화인 얼음꽃, 풍경화인 구천동 계곡등이다.

그중에서도 하 화백은 '혼적-지나온길'이라는 무채색의 그림에 가장 애착이 간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춘향국악대전' 국민 청중평가단 모집

26일까지 신청서 접수

춘향국악대전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광한루 누각에서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을 펼치며 경연 참가자들의 신청과 함께 국민 청중평가단을 모집한다.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이자 춘향가, 흥보가의 배경지로 수많은 판소리 명창을 배출한 남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춘향국악대전 경연은 5개분야 13개 종목으로 진행,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초중고 학생부) △무용(일반부, 학생부) △민요(일반부, 학생부) △기악관악(일반부, 학생부) △기악, 현악·병창(일반부, 학생부) 부문이다.

참가 접수는 △학생부는 오는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청하고 △일반부 및 명창부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또는 e-mail (mwgugak@naver.com)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는 제94회 춘향제 홈페이지 또는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있다.

위원회는 결선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 이외에 만18세이상 국악관련 졸업자 또는 국악애호가를 대상으로 국민 청중평가단 30명을 공개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면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 기간은 학생부는 5월 5일(단심제), 일반부 예선 및 판소리 명창부 예선은 5월 11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지리산 소극장, 안숙선 명창의 여정, 남원농악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일반부 분선 및 종합결선과 판소리 명창부 결선은



춘향국악대전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광한루 누각에서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을 펼치며 경연 참가자들의 신청과 함께 국민 청중평가단을 모집한다.

5월 1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은 상금 5,000만원과 대동명상, 일반부의 판소리, 무용, 기악관악, 기악현악·병창, 민요 각 분야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상 등이 수여되며, 판소리 고등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하고, 자세한 문의는 제51회 춘향국악대전 사무실(063-620-5726~27)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리더·참여 예술인 모집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1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이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로180'(이하 예술로180')에 함께할 도내 리더·참여 예술인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예술로180'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대상은 예술인 활동 증명을 완료한 도내 예술인으로, 총 38명(리더예술인 7명, 참여 예술인 31명)을 모집·선정한다. 선정된 예술인은 7개의 기관과 매칭해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더예술인은 월 140만원, 참여 예술인은 월

120만원의 활동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하며, 올해 최초 수혜자(신규참여) 예술인은 가산점(2점)을 부여한다. 2025년부터 3년 이상 참여한 리더·참여예술인은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로180'에 선정된 도내 기관·기업은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생태탐방원,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주)서울시니어스고향타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인후반촌도시재생주민협의체,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 △진안사람 등 총 7개 기관이다.

참여 신청서는 재단 누리집(www.jc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19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jb_7447@hanmail.net)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17일까지 공예주간 전라도 일반참여처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이 '2024 공예주간' 행사에 함께할 전라도 지역에 활동하는 공예 작가와 단체 등의 일반참여처를 오는 1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선정된 참여처는 전당과 함께 △공예X오감 전시 △지역 공예인과 함께하는 C-st 공예체험 △공예생활 토크콘서트 △공예굿즈 팝업마켓 △공예생활 이벤트 등 총 5개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한다.

또한 △공예주간 및 전당 SNS 홍보채널을 통

한 참여 업체 홍보 △굿즈 및 포스터 등 홍보물 키트 제공 △공예주간 기간 내 문체부/공진원/전당 명칭 사용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처 모집은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전주공예품전시관 누리집(jonjucraf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메일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공예산업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